

# 시민 체감형 신규사업 발굴

## 익산시, 내년도 신규시책 34개... 정부 정책 연계논의 국가예산 발굴사업 22개, 8569억원 규모... 준비만전

익산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내년도 시책사업과 2022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시는 20일 정현을 시장과 간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뉴딜사업,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사업 시민 생명보호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이를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도 신규시책은 총 34개 사업으로 시정 방향과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확대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집중 관리한다.

발굴된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 ▲의산형 청년창업지원사업, ▲민간시설 휴(休)공간 정비사업, ▲익산대로 경관조성사업, ▲백제왕도 익산 토성 탐방로 조성사업,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상수도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이어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 발굴사업은 총 22개 사업, 총사업비 8569억원 규모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11개 사업은 지난 8월 발굴한 22개 뉴딜사업과 함께 익산시 주도형 뉴딜사업으로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국가예산사업으로는 ▲시 기반 관광플랫폼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빛반응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익산 디지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홀로그램 교통신호차량관 건립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합월지역) 등이다.

이 밖에도 오는 28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달여간 실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에 익산시 사업을 최대한 증액시키기 위한 추진전략도 꼼꼼히 행쳤다.

정현을 시장은 "국가예산은 정부 정책을 지역 정책에 얼마나 실속있게 연계하는지가 관건이다"며 "뉴딜사업은 지역발전을 고려해 전국 공모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공모계획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사태로 장기불황에 따른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민체감증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체감형 시책을 집중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발굴된 시책사업에 대해 다음달까지 시의회 사전심의 등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본예산 편성에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국가예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최종확정 후 정칙권과 공조를 강화해 중앙부처 예산변형 협의를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정왕원 기자

# 군산시, 기술직 공무원들 역량 쑥쑥~

## 설계변경·원가심사 사례 등 담은 기술교재 제작 배부 호응

군산시가 기술분야 신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담은 기술교재를 제작 배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 급증과 함께 8~9급 신규직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행정잘차 이행 및 현장 경험 부족에서 우려되는 신규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숙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기술직 공무원인 시설·공공직 임용은 최근 5년간 총 108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 감사담당관은 토목, 건축 등 기술직별 신규직(8급 이하)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주요 사업장의 민원 발생 최소화 및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계변경, 설계변경 유권해석, 일상·원가심사 사례를 수록한 기술교재(2권)를 제작해 관련부서 신규직 108명에게 배부했다.

기술교재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례별 상세한 설명을 통해 기술행정 실무경험이 부족한 8급 이하 신규 기술직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여 향후 사업추진 시 무분별한 설계변경 지양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계변경 유권해석 사례 및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정보통신 분야

등 일상·원가심사 사례를 수록해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에 부합하는 설계 및 적극적인 기술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기술교재에 담았다.

이외에도 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의 기술업무 역량 강화 및 폭 넓은 간접경험을 위해 신기술 및 현장 시공사례 52건과 건설분쟁 소송관련 자료 18건을 세출행정 게시판에 게재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군산시 기술업무의 성숙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고남철 감사담당관은 "이번 기술교재 배부를 통해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변경 관련법령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기술적 계약금액 조정으로 사전 예산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계약금액 조정 분야별 분쟁사태를 숙지함으로써 건설분쟁 소송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담당관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정보 및 건설법률 자료를 발췌 게재하여 직원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연말에 기술분야 전문지식 및 상부기관 감사사례 등을 모아 제2회 기술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군산=한영봉기자

# 지역 소식 통

## 익산시, 개방주차장 확대

익산시가 열악한 도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주차장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20일 하반기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백제초등학교, 한별초등학교, 새롭교회, 율박교회, 동성교회 등 5곳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방주차장은 인구밀집 지역, 불법 주차차 예방효과 등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된 개방주차장은 방법시설 설치, 시설 보수 및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2000만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도심권 공공주차장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심권 주차장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모를 통해 10개(남중교회 등 9개소)를 선정해 95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바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

## 익산, 독감 유료접종 취소

익산시보건소는 질병관리청에서 보건소 독감 백신 공급량을 전국적으로 감소시킴에 따라 독감 유료 예방접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보건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백신이동 중 상운노출 사고로 중단되었던 예방접종을 지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했으나 일부 백신 중 '백색입자'가 발생하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어 30개 백신을 회수하기로 결정해 예방접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백신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재분배의 이유로 지자체 배분량의 5.8%(익산시 4.57개)의 분량을 회수에 무료접종 백신 분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부득이하게 유료 예방접종을 전면 취소했으며 전국적으로 독감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무료접종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

# 군산지역 애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탄력

## 군산대 새중원 파트너 에이피솔루션즈, 알텐그룹 편입

군산대학교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주)에이피솔루션즈가 세계적인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알텐그룹에 편입되면서, 군산의 애로기업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대학교와 에이피솔루션즈는 올해 8월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군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AP솔루션즈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군산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적극적인 연계 활동을 준비 중이다. AP솔루션즈가 올해 7월 세계적인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알텐그룹에 편입되면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P솔루션즈의 회사명과 기업문화를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호 사업영역을 강화하고 넓혀 나가기 위한 전략적 편입으로 알려졌다.

알텐그룹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다. 1988

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자동차, 항공, 방위산업, 통신, 에너지 및 생명과학까지 사업영역을 키워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3만7200여 명의 직원과 28개국에 사업거점을 마련하였고, 작년 말 기준 35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시아 시장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에 진출을 하는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략적 편입 배경에는 알텐그룹이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AP솔루션즈가 한국 시장에 접목시켜 신규 사업의 영역을 넓히려는 계획이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대학교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주)에이피솔루션즈가 세계적인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알텐그룹에 편입되면서, 군산의 애로기업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홍남동 '야심장터' 가을밤 불 밝힌다

## 도시재생 일환, 중고물품 장터 24일 미원광장... 풍물놀이 등

홍남동 소규모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 '야심장터'가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미원광장에서 열린다.

홍남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여러 신공동체는 지난 9일과 10일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야심장터'를 개최했으며, 이를 위해 미원광장에 180개의 전구를 설치하는 등 가을밤의 불을 밝히고 있다.

'야심장터'는 가족과 개인, 순수동호회의 중고물품 판매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4일 오후 4시부터 풍물놀이, 마술공연 등이 함께 진행돼 신나는 장터 한마당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남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야심장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원광장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주는 공간

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홍남동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성과물은 스스로 마을을 재생해나간다는 주민들의 의지"라며 "미원광장을 중심으로 따뜻한 도시재생 활동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남동 미원광장은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주민거점지원 미원광장 마을관리소를 개소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로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인근지역 상권 활성화와 정주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